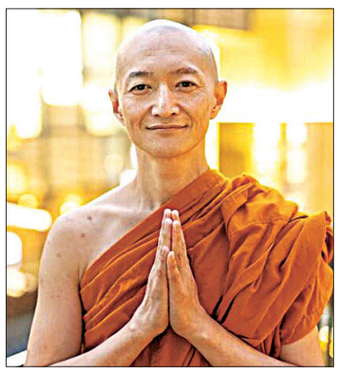
세계적 기업 CEO, 은퇴 후 '황혼출가' 화제

5천만 회원 스트리밍 기업 대표
인도 여행 중 슈레이 스님 만나
3주 후 수계…76만엔 재산 포기
여생 '이타행'으로 방향 잡을 것

박영빈 객원기자

은퇴 후 삶을 마무리하는 '황혼출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적인 대기업 CEO에서 은퇴 후 출가를 선택한 사례가 최근 일본에서 화제다. 일본의 'SPA! 뉴스'는 지난 21일, '17LIVE'의 전 CEO인 오노 류코 스님의 특별 인터뷰를 보도했다.

SPA! 뉴스는 인터뷰에 앞서 스님의 약력을 소개하며 "젊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력하는 삶을 살며, 장년기에 부와 명예를 얻는 교과서적인 삶을 산 인물"이라고 평했다. 출가 전 오노 히로후미라는 이름의 벤처기업가였던 스님은 12년간 일본 최대의 벤처 경영자 모임이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모바일 미디어를 비롯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다. 특히 출가 직전엔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자랑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대기업인 '17LIVE'의 CEO를 역임하며 회사를 안정화시킨 것은 스님의 대표적인 커리어다.


CEO에서 은퇴하고 출가자의 삶을 선택한 류코스님. 사진출처=SPA! 뉴스

류코 스님은 인터뷰에서 "이제는 류코(龍光)이라는 이름을 받고서 오노 히로후미라는 속세의 삶은 전생의 삶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며 출가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출가계기에 대해 은퇴 후 계획한 인도여행이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친구와 인도 여행을 계획했다. 당시에 출가은사가 되는 사사이 슈레이 스님의 책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SPA! 뉴스는 "사사이 슈레이 스님은 인도불교 부흥에 일생을 바친 일본 스님으로 처음 50여 년간 10만 명에 불과했던 인도인 불교도를 1억 5천만 명으로 성장시킨 스님이나 일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슈레이 스님과의 만남은 우연히도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친구의 지인이 스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던 것에서 성사됐다. 류코 스님은 "인도에서 슈레이 스님을 뵙는 순간 운명적인 어떤 것을 느꼈다"면서 "스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다. 만난 그날 '자네 스님이 돼서 일본으로 돌아가게'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당시의 만남을 회상했다.

마침 스님과 만난 3주 후, 1년에 한 번 열리는 인도의 집단 개종 및 수계식이 예정돼 있었다. 류코 스님은 "슈레이 스님께서 '거기라면 정식으로 출가할 수 있다'고 말하셨다. 곧 90을 바라보는 선지식을 두 번 다시 뵐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생각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노라 결심해 출가를 결단했다. 주저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류코 스님은 "출가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말하면 '스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요'라는 답을 듣곤 한다. 하지만 전혀 반대다. 계속해서 일만 해왔고, 성장만을 요구하는 나날이었다. 일에 대한 의문과 자신을 속이는 감각이 강했기에 오히려 출가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출가 후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다 "현재 내 명의의 재산은 76만엔 정도, 모든 재산은 대부분 출가 후 아내에게 넘겼다. 향후의 목표는 남은 일생을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즉 이타행만을 방향성으로 삼는 것"이라고 전했다.

印 달리트 1만5천 여명, 불교로 개종

암베드카르 박사 탄생 132주년 기념
서부 공동체서 집단 개종 법회 열려


카스트 제도로 인한 차별을 피해 개종하는 달리트. 사진출처=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인도 서부 구자라트 지구에서 암베드카르 박사의 탄생 132주년을 맞아 수백 명의 달리트가 불교로 개종해 화제다.

지난 4월 14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에 있는 달리트(दलित, 억압받는 자)공동체에서 달리트의 단체 불교 개종 소식을 전했다.

인도 헌법기초위원장, 법무장관을 역임한 암베드카르 박사의 탄생 132주년을 맞아 진행된 개종식은 5만 명에 달하는 달리트가 참여해 불교로 개종 및 기념 행진에 동참했다. 불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은 암베드카르 박사가 했던 22가지 서약을 외쳤다. 이 서약은 힌두 전통을 거부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종식은 자원봉사 단체 스와이암 사이닉달(SSD)주최했으며 프라그야 라트나 스님이 주관했다. SSD 관계자는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고 약 1만 5000명 불자들은 지역 행정센터에 불자로 인정받기 위해 개종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개종금지법 발효로 인해 위협, 협박, 유혹, 기망 등의 행위가 없이 자발적 개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검증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종식에 참여한 자이수크는 "나는 세 차례나 취업에 실패했다. 면접 당시 분위기가 좋았지만 면접관이 내 카스트를 알게 된 뒤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불교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종교다. 그래서 카스트가 없는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불교로 개종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종자 초한은 "개종 전 벽돌 가마에서 벽돌을 만들었다. 작업장에서 물 한 모금조차 편히 마실 수 없었다. 달리트는 닿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등과 자비의 문화를 따라 불교로 개종하고 있다"며 "힌두교에서는 모든 삶에서 카스트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았고 이는 사람이라면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밝혔다.

집단 개종식은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암베드카르 박사와 수십만 명의 평민, 달리트가 힌두교와 기존의 전통 종교, 토속신앙 등을 거부하고 삼보(三寶)에 귀의한 달리트 불교 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인도-스리랑카 불교로 문화유대 강화

수교 75주년 기념, 대표단에
불교 전래 묘사한 그림 선물


인도와 스리랑카의 문화적 유대를 묘사하는 그림이 공개됐다. 사진출처=위온 뉴스

인도와 스리랑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의 미낙쉬 레키 외교문화부 장관은 양국 간의 문화적 역사적 유대를 묘사하는 일련의 그림을 공개했다. 지난 4월 22일 인도의 '위온 뉴스'는 불교로 엮인 두 나라의 문화유대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4월 22일 뉴델리에서 열린 양국의 수교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스리랑카의 고등판무관 밀린다 모라고다는 아쇼카 대왕의 아들이자 포교사였던 마힌다와 공주였던 상가미타 장로니 스님이 인도에서 스리랑카에 도착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인도 측에 선물했다.

이날 스리랑카에서는 밀린다 고등판무관을 대표로 와스카두웨 마힌다완사 마하나야케 장로 스님이 이끄는 스리랑카 불교계의 대표단이 동행했다. 국제불교도연맹(IBC)의 사무총장 아비짓 할더도 행사에 참석했다. 양국의 수교 75주년 기념을 위해 열린 이번 기념식은 국제불교도연맹(IBC)과 인도문화부가 주관하는 2023년 세계불교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리랑카 대표단이 뉴델리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인도 정부에 선물된 그림은 콜롬보 근교의 켈라니야 라자마하 비하라 사원에 그려진 벽화 복제품으로 원화는 스리랑카의 유명화가 솔리아스 멘디스의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기원전 3세기 스리랑카에서 불교의 시작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그림에는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도착하자마자 스리랑카의 데바남피야티사 왕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이며, 두 번째 그림은 상가밋타 장로니가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보리수의 묘목을 가지고 도착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기념행사 중 레키 장관은 "인도와 스리랑카 간의 긴밀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 관계를 불교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이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대표단은 이에 대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스리랑카와 인도 간의 불교 네트워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레키 장관의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리랑카 대표단을 이끈 밀린다 고등판무관은 "스리랑카와 인도간의 깊은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고려했을 때 스님들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헌팅턴 미술관, '송나라 불교 경전 특별전'

900년 된 '대방광불화엄경' 공개


헌팅턴 미술관이 소장한 〈대방광불화엄경〉. 사진출처=헌팅턴 미술관

미국 헌팅턴 미술관이 송나라 불교 경전 특별전을 개최했다. 지난 4월 21일 국제 미술 전문 매체 '아폴로'는 미국 헌팅턴 미술관의 송나라 불교 경전 특별전 개최소식을 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헌팅턴 미술관 서부 전시관에서 '1085년 인쇄: 송나라의 중국 불교 경전' 특별전이 4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린다. 900년 이상 된 〈대방광불화엄경〉의 일부가 대중에 공개된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송 왕조(960~1279년) 중 1080년에서 1112년 사이에 제작된 절첩형 경전이다. 전시에서는 총 9.5m 중 6.4m가 전시된다. 이 경전은 불교 경전 중 가장 긴 경전 중 하나이며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지켜지고 있는 교리와 의식 관행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숭녕만수대장(崇德萬壽大藏)〉의 일부도 전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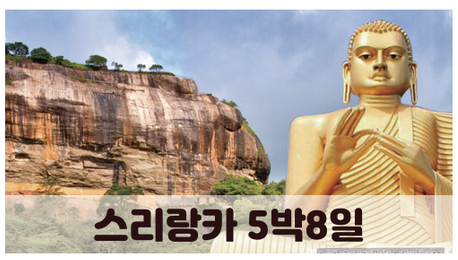
헌팅턴의 퍼시픽 림 컬렉션 리 웨이 양 큐레이터는 "'1085년 인쇄' 특별전은 유럽의 금속활자 보다 수 세기 전에 행해졌던 중국의 인쇄술과 불교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큐레이터에 따르면 송나라 부흥기인 960년부터 976년까지 통치한 타이즈 황제는 불교 가르침을 대중에 전파하기를 원했다. 이는 중국에서 목판 인쇄의 가속화로 이어졌고 이후 송나라 휘종(1082~1135) 때 중국 장시성에 있는 동선사에서는 승려와 장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팀을 이끌고 165,000개 이상의 목판을 자르고 잉크를 찍어 5,850권의 〈숭녕만수대장〉을 인쇄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과 가장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대장경 판각사업 중 하나였다. 오늘날 동찬사에는 〈숭녕만수대장〉의 유물이 남아있지 않으며 일부 유물은 아시아, 유럽, 북미 전역의 도서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있다.

이 특별전은 경전이 만들어진 배경과 종교적 중요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중국 불교 경전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경전과 관련된 추가 자료도 전시 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이 경전을 볼 때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위해 설계된 맞춤 진열장에 전시해 기적적으로 보존된 유물과 독특한 서지학적 특징 및 정교함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민재 객원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02-365-7747
성지순례를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7대성지 11일
룸비니, 보드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르 등 7대 성지와
타지마할 등 관광까지 포함한 꽉~찬 일정입니다.


바이칼/몽골 5박6일
시베리아의 푸른 눈 바이칼 호수,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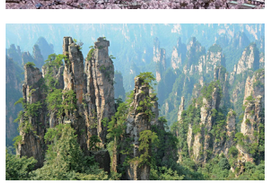

스리랑카 5박8일
남방불교의 중심지 스리랑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담불라 동굴사원 등을 순례합니다.


라오스 3박5일
다양한 액티비티의 천국 방비엥,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루앙프라방,
라오스의 중심 비엔티엔까지!


대만 4박5일
대만 최대 불교성지 불광산사와,
법고산사 등 대표 순례지와
야류해양공원, 온천호텔 휴식까지!


동남아
방콕/아유타야 3박5일 화려했던 불교문화가 남겨진 도시
치앙마이 3박5일 고유의 문화와 자연이 조화로운 곳
베트남/캄보디아 3박5일 죽림 선종파의 탄생지+신비의 왕코르와트


일본
도쿄/하코네 3박4일
오사카/교토 3박4일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의 대표 도시 도쿄와 오사카, 시코쿠 등 순례를 떠나봅니다.
필수 사찰 포함, 관광, 휴식, 먹거리까지!


중국
무릉도원 장가계 3박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다시 열린 중국 하늘!
세계자연유산, 장가계+원가계+천문산
백두산(서파/북파) 등을 만나봅니다.

출발일, 인원수, 이용 항공, 호텔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